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그 가지는 바다까지, 그 새순은 강까지 뻗었다." [시편 80:11]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의 교회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1902년 5월 14일(음) 출생, 1963년 1월 21일 별세(61세)
- 그리스도의 나라에 몸바친 애국자
- 세상사(가정, 즐거움, 명절, 등)를 멀리한 가장(家長)
-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 받은 지도자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었던 독서가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했던 신령한 자
- 신약성경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 및 그 능력을 복원하고자 3대 운동을 전개했던 개혁가
- 사도 바울과 같은 떠돌이 전도자
- 충청전라 지역 수십 개 교회 개척자들의 사도
-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설립자 및 목회자 양성자
- 반천련(伴天連, 동역자들)의 박애 스승

김은석 목사의 환원 전(前)
그리스도(인)의 교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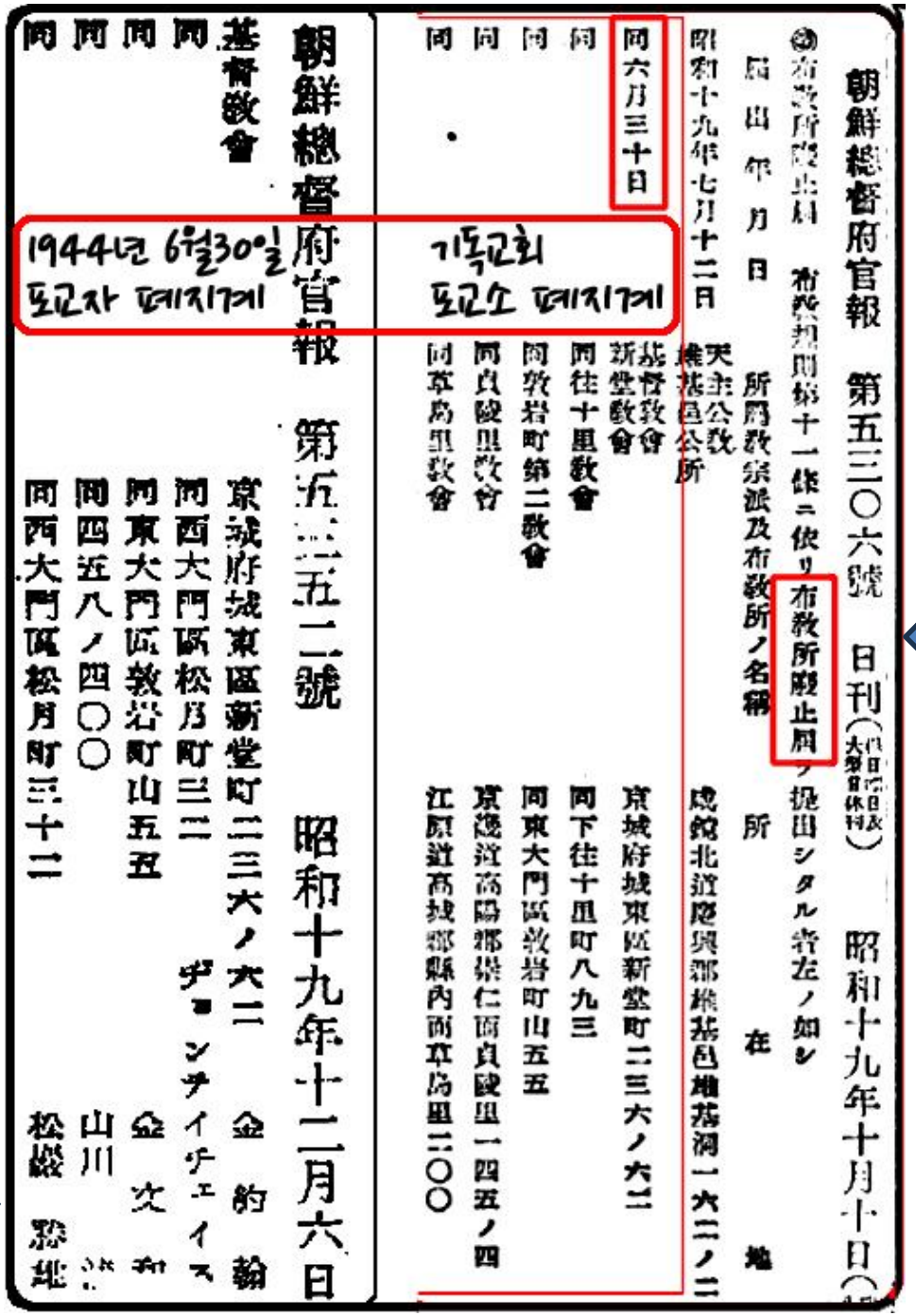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현황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및 기독교회(남대문통)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소계	북한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부산	합계
1924-42년 요츠야선교부 설립					0	4	5	5			5		19
1935-41년 존 채이스, 존 힐					0		6		1				7

-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신사참배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통합 반대
- 그로 인해서 1944년 6월 30일까지 조선총독부로부터 포교소,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 모두 폐쇄 당함.



朝鮮總督府官報　第五三〇六號　日刊（但日曜日及大祭日休刊）　昭和十九年十月十日（
◎布教所廢止届　布教規則第十一條ニ依リ布教所廢止届ノ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ノ名稱　所在地
昭和十九年七月十二日　天主公教　基督教會　咸鏡北道慶興郡雄基邑雄基洞一六二ノ二
同　同　所屬公所　新堂教會　京城府城東區新堂町二三六ノ六二
同　同　同往十里教會　同下往十里町八九三
同　同　同敦岩町第二教會　同東大門區敦岩町山五五
同　同　同貞陵里教會　京畿道高陽郡崇仁面貞陵里一四五ノ四
同　同　同草島里教會　江原道高城郡縣內面草島里二〇〇
同六月三十日　基督教會　基督敎會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朝鮮總督府官報　第五三二號　昭和十九年十二月六日
京城府城東區新堂町二三六ノ六二　金約翰
同西大門區松月町三二　ザ・ンナイチェイス
同東大門區敦岩町山五五　金文和
同四五八ノ四〇〇　山川
同西大門區松月町三十二　松巖　恭雄

1944년 6월30일 폐지계
포교소 폐지계
포교자 폐지계

포교소 폐지

포교자 폐지

폐쇄당한 후 지하교회로 살아남은 두 개 교회

- 돈암정기독교회와 경성기독교회(내수정)(1943년 필운동으로 이전)는 해방 전 직후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힘쓴 파종 겨자씨앗이었다.
- 최상현과 성낙소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기름을 공급한 두 감람나무였다.
- 최상현과 성낙소는 해방직후 교단명 '기독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경 – 예: '1946년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 선언문'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필운동교회). 한문수학, 경성구세군 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 관리자 역임



'기독(그리스도인의)교회'의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슥 4장, 계 11장)



최상현 목사(1891-공산군에 피납)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 연경대학교(수학), 협성신학교 졸업, <신학세계> 편집인 역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소계	북한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부산	합계
1924-42년 요츠야선교부 설립					0	4	5	5			5		19
1935-41년 존 채이스, 존 힐					0		6		1				7
1950년 6월 25일 전까지, 존 힐													42
1953-58년 김은석 목사 주소록	9	14	28		51		2			2	4		59
1955년 해롤드 테일러 전수조사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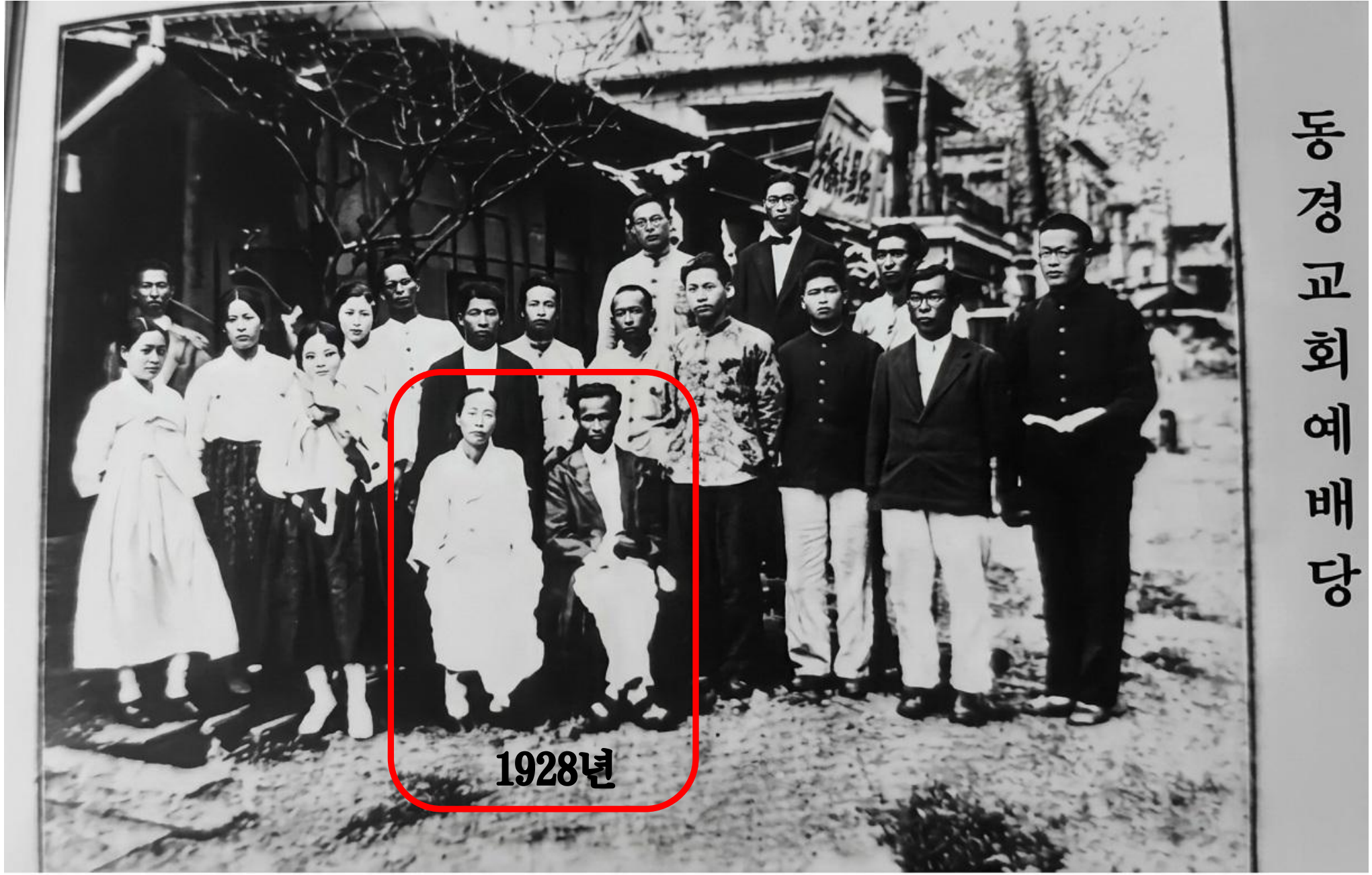
해방직후 2개 교회가 5년 후 42개, 10년 후 75개로 성장하였는데, 이들 교회들의 상당수가 충청이남지역에 개척된 교회들로써 김은석 목사의 리더십과 그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로 인한 것이었다.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소계
1924-42년 요츠야선교부 설립					0
1935-41년 존 채이스, 존 힐					0
1950년 6월 25일 전까지, 존 힐					
1953-58년 김은석 목사 주소록	9	14	28		51
1965년 기독교연감	19	16	24	1	60

● 김은석 목사가 사망한 직후 충청이남지역에는 60개의 교회가 있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이것을 김은석이 일으킨 부흥운동의 결과라고 하였다.

김은석 목사를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환원시킨 인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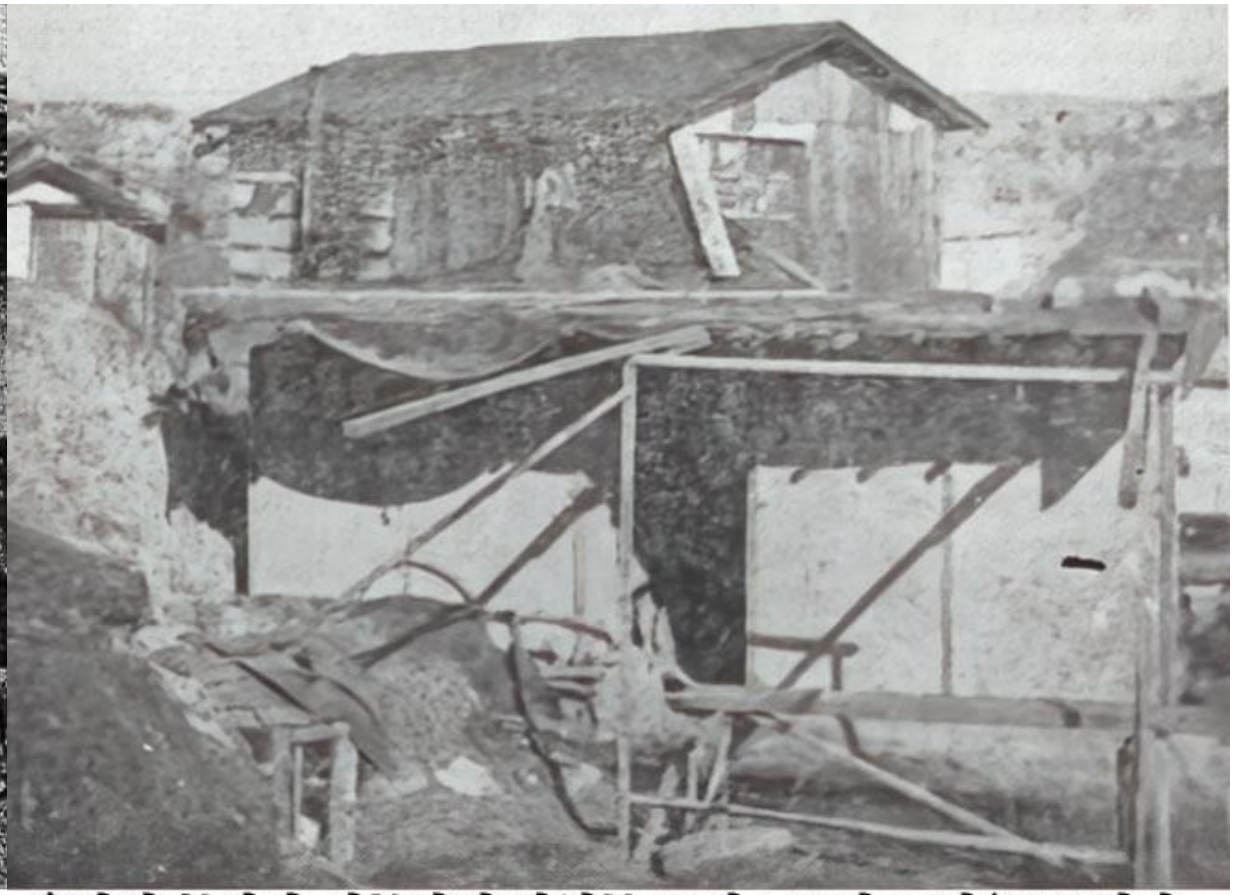




약사 p132 윤낙영 전도사. 동경성결교회



서울 아현기독교회(1936년 3월 22일)



윤낙영 목사가 시무하던 아현동 그리스도의 교회(1948년말-1949년초 사이). 방 두칸짜리 2층이 집회소였고, 80여명이 착석해 예배를 드렸다. 천정이 낮아 채이스는 상체를 세우지 못했고,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다.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필운동교회)
학문수학, 경성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횡빈(요코하마)조선인기독교회 시무
요츠야 선교부 조선포교관리자(1931.9-)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1932.6.11-1936.1.10) [사진 AI 수정]



최상현 목사(1891.12.27-1950.08 공산군에 피랍)
[출처: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

기독교회 선교회의
'한국인성경훈련원'의 교육생 겸 목회자들

성수경 학생
1937년 12월
24일 합류



채이스 선교사의 사역자들/신학생들(1938년 1월경), 성낙소(1939년 봄/합성)
좌측부터 성수경(성낙소의 아들), 박판조 목사(정릉리교회), 백낙중 목사(왕십리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채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돈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산돈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성낙소 목사
1939년 초 합류
1936.09.04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 포교폐지 당한 후
1937-38년
'조선예수교회'에 소속.



좌측부터 군목 할 마틴(Hal Martin)과 최상현 목사 선교사가 없던 1947년 후반기에 전근을 명 받고 가족 (Evelyn, Gary)과 함께 김포 항공기지에서 47-48년 사이에 근무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많이 도왔다.



어린이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는 할 마틴(Hal H. Martin) 군목(1957년 텍사스 샌안토니오 브룩스 시티 미 공군 베이스)

- 김은석-해방 직전 일본에서 귀국하여 1945년 가을 충북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 부임. 곧바로 100일 집회 강행, 성령부흥운동으로 제명당함. 1946년 일본에서 부터 김은석을 추종했던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 및 오데골에서 따라 나온 김교인 장로 구봉례 집사 등과 함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6.25직후 피난길에 윤낙영의 생가 방문.
- 성낙소(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졸)-구세군 사관. 윌리엄 커닝햄의 도쿄 요츠야선교회 산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조선포교관리자 역임. 1937-38년 조선예수교회 소속, 1939년 초 존 채이스의 기독교회(남대문통) 합류. 1946년경 윤낙영 영입(필운동교회가 생활비 후원). 윤낙영이 성낙소에게 김은석을 소개하자 성낙소가 최상현과 상의하여 김은석의 환원을 도움(추정).
- 윤낙영(동경성서학원 졸)-만주 용정교회(1925, 성결교), 동경기독교회(1927-28, 성결교) 등 설립. 윌리엄 커닝햄의 도쿄 요츠야선교회 산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기독교회, 영등포기독교회에서 사역(1930-40년대). 1946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증평교회 시무. 1947년 이후 존 채이스의 기독교회 아현동기독교회 사역. 두 딸이 아현동 금화산 언덕의 김은석의 집에서 셋방살이.
- 최상현-1947년 초가을에 김포공군기지에 부임한 할 마틴(Hal H. Martin) 미 공군 군목을 대동하여 1947년 가을 이후 48년 경에 부강을 방문하여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강연하고 김은석 목사, 신현창 장로 등 포함하여 침례 베풂.
- 김은석의 주요 동역자들: 신현창(신화신학 교수), 최춘선, 최요한, 이신(신화신학 교수).
-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졸업생들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수십 개 교회 개척

신현창 장로(1892-1951) 세브란스 의전 졸업(1918, 의사)





대한독립애국단 특파원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 전달 및 상해에서 병원 개업 수익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 임정의정원 충청도 의원으로 활약. 부강(충북)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여 목회자 양성에 힘씀. 충곡리(논산)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만교 최춘선 목사
(1921-2001.09.08)

**도쿄 와세다 대학 졸업, 광복군 섭외부장,
김은석 목사 후배 동역자, 김포 교회 개척**

충청도 전라도에서 성령운동을 펼친
김은석의 후배 동역자들: 이신과 최요한

김은석 목사
1902-1963



이신 목사/박사
1927-1981



최요한/용환 목사
1923-1998



목포그리스도의교회
1952/57-현재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의 환원시기와 정황

- 미군정 시기 곧 선교사들의 부재시기에 김은석 목사는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동역자 내과의사 신현창 장로와 함께 할 마틴(Hal H. Martin) 미공군 군목, 최상현 목사 및 성낙소 목사를 만난 것이 확실시 되고, 이로 인해서 존 채이스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난 사실을 보고하였다.
- 〈한국인 전령〉 1947년 12월호에 따르면, 최상현이 침례를 베푼 분이 충청지역에 세운 교회에서 40명이 침례를 받았고, 인근에 두 개의 교회들이 더 세워졌다고 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환원시기와 정황

- 이 "두 개의 교회들"에 부강교회(김은석)와 신탄진교회(정찬성)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 김은석 목사는 부강 오데골장로교회를 사임 후 김교인 장로 등과 함께 1946년 부강교회를 개척하였고, 내과의사 신현창 장로와 함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열었으며, 제자 박점삼, 정찬성 등이 1947년경부터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 정찬성은 신탄진교회를 섬기던 중 6.25전쟁이 터지자 부여 합송으로 피난하여 합송교회를 섬겼다.

김은석 목사의 환원시기와 정황

- 존 채이스는 최상현 목사가 침례를 베푼 분이 장로교인 내과의사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부강교회에서 김은석 목사와 함께 신화신학연구회를 조직하여 목회자들을 양성한 신현창 장로(CCM작곡가 최덕신, 최유신 목사의 외조부)로 추정된다.
- 존 채이스는 〈한국인 전령〉 1949년 7월호에서 당시의 현황을 선교사 4명(존 채이스 부부와 존 힐 부부를 말함), 10개의 교회, 7명의 목회자와 성서훈련원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1948년에 116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환원시기와 정황

- 그리고 추가로 타자기로 쓴 편지를 한 장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49년 전반기에 150명 이상이 침례를 받았고, 태평양전쟁 중에 2개만 남았던 교회가 지금은 19개로 늘었다고 보고하였다.
- 채이스 선교사가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분명한 것은 교회숫자가 갑자기 10개에서 19개로 늘어난 배경에는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김은석 목사의 환원시기와 정황

- 존 힐 선교사는 1949년 상황에서 남부의 세워진 교회들의 상당수가 김은석 목사의 공덕이라고 하였다.
- 일본에서부터 김은석을 추종했던 박점상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 가족이 서울 북아현동에 있을 때 박점상은 이웃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김은석 목사가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기 이전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재건교회를 비롯한 몇 교단들에 가입을 탐색하였으나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1946년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환원시기와 정황

- 김은석 목사는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운동에서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지만, 침례와 주의 만찬 등의 교리가 성서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 그리고 박점상은 1947년 부강으로 내려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일하며 부강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고 하였다.
- 최상현 목사의 보고와 박점상 목사의 증언으로 볼 때, 김은석 목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시점이 1946년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은석 목사의 환원시기와 정황

- 선교사들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미군정시기에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H. Martin)이 1947-48년사이에 일본 큐슈를 거쳐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돕고 있었다.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1864-1936)를 중심으로〉(김찬영, 한성신학교, 1991)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가 할 마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최상현 목사가 존 채이스에게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김은석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개척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신약교회로의 환원'이란 주제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는 과정'이란 두 가지 부주제로 개최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수련회 모습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신약교회로의 환원'이란
주제로 개최된 그리스도(인)교회들의 수련회 참석자들

김은석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개척

- 이 무렵의 〈한국인 전령〉에 실린 글을 볼 때, 존 T. 채이스가 장소와 인물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할 마틴, 최상현, 성낙소 등이 김은석 목사의 초청으로 충북 부강을 왕래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 1948-49년 사이에 채이스 선교사가 알고 보고한 교회숫자는 6개에 불과하였다.
- 존 채이스는 〈한국인 전령〉 1949년 7월호에서 10개 교회라고 했다가 갑자기 19개 교회로 수정하여 보고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개척

- 그런데 놀랍게도 **존 힐 선교사**는 1950년 6월 25일 직전까지의 교회숫자를 **42개로 보고**하였다.
- 또 1955년 말에 입국하여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전수조사한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이란 선교지 1956년 6월호에서 **75개로 보고**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개척

●이렇게 갑자기 교회숫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충청이남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환원 10연차였던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있었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서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개척

- 김은석 목사는 부강교회와 선화동교회를 개척하였다.
- 김은석 목사는 대전시 선화동에 땅 385평을 매입하였고, 1952년경에 사택이 딸린 예배당을 지었다.
- 선화동교회 주소는 김은석 목사가 옵아듸야(오바댜) 끝 여백에 남긴 메모에 나온다.
- “1953년 8월 25일에는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나의 주택에서 봉독하였다.”



초창기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1954년 6월 14-19일 신앙실천일치토론회 기념사진

신약성경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 및 그 능력을 복원하고자 3대 운동을 전개했던 개혁가

- 첫째, 교파를 초월해야 한다. 교회명칭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야 한다.
- 둘째, 성경대로 침수 세례를 받아야 한다.
- 셋째, 매주일 주의 만찬을 해야 한다.
- 김은석은 성경대로 이 세 가지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개신교나 천주교나 세례의 형식이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었다. 주의 만찬식에서도 신부(사제)는 빵과 잔을 모두 먹고 마셨지만, 신자들은 빵만 받아먹었다.

敎會名稱을 明示함

1 曠野敎會라 이는 旧約時代 (行七38
2 하나님의 敎會라 (行二十28 고전-2+32+고후1-1)
3 나의 敎會라 하심 (마十六18
4 그리스도의 모든 敎會라 (로十六16
5 하나님 敎會라 (고전十一16
6 모든 聖徒의 敎會 (고전十四33
7 사랑하신 하나님의 敎會 (딤전 三15

이무에 소라고 敎會말고도 만코많치만 이와
같은 名稱을 다라라 말함은 것과
또 場所名에 다라 하서 있도데
一 아모개 집에 있는 敎會에 문안하라 (롬-2
二 아모대 사람에 敎會에 문안하면 산현-사살후-사
이와 같은 것은 이를 드러 하심이지만
모든 이와 같은

敎會名稱에 대하여 세 가지 重要한 것을 말하였으니 곧 敎會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과 敎會名稱에 대하여 아무런 重要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敎會는 장소에 관계없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此外 요한=13

김은석 목사와
선교사들과의 관계



김은석 목사와 선교사들과의 관계

- 미군정시기이후 1955년까지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 존 J. 힐과 폴 E. 잉그램(권투선수 출신, 할 마틴으로 부터 김포공군기지에서 침례 받았고, 제대 후 신학공부를 마치고 선교사가 됨), 그리고 1955년 말부터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주재하였지만, 김은석, 이신, 최요한 등을 비롯한 충청이남지역 목회자들은 선교부와 긴밀하지 못하였다.
- 또한 선교부와 선교사들은 이 무렵에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로 많은 시간과 재정을 쏟아부어야 했었다.

김은석 목사와 선교사들과의 관계



- 반면에 김은석 목사는 1946년부터 1963년 1월 21일 별세하기까지 대략 16년 동안 신화신학성경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수 십여 개의 개척교회들이 자력으로 세워지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 김은석, 이신, 최요한 등은 기본적으로 반선교사 정서와 토착, 자생, 자주적 성향이 강하였다.

김은석 목사와 선교사들과의 관계

- 김은석 목사는 충청이남권의 교회들을 불철주야로 돌보면서 도움이 절실한 교회들을 대신해서 아주 가끔씩 선교부를 찾았을 뿐이다.
- 충청이남지역 목회자들은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존 T. 채이스와 존 J. 힐 선교사가 해방 후 다시 시작한 신학교(교수: 존 힐, 최상현, 성낙소, 백낙중)에서 가르치는 것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에 매우 불편해 했다.

김은석 목사와 선교사들과의 관계

- 이견의 핵심은 성령론이었고, 교단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목회자들도 있었다.
- 충청이남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라 **성령의 카리스마를 강조한 김은석, 이신, 최요한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다.

김은석 목사와 선교사들과의 관계

- 1950년대 초중반에 이런 불편을 참지 못하여 정찬성 목사, 김상호 목사(오산리 금식기도원 주임목사로 섬김), 최요한 목사, 김교인(1890-1970) 장로 등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떠나 순복음으로 넘어갔다.
- 하나님의 성회의 창립총회가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김은석 목사와 선교사들과의 관계

- 앞 주간에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교회에서 주일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집에 온 김은석은 월요일 1957년 8월 26일에 선교사 해럴드 테일러 등 총 14명의 방문을 받았다.
- 그 주간에 전남 영암군 학사면 상월리 교회에서 결혼식(최근수, 김은영)이 있었고,
- 9월 첫 주간에 '기독교회선교부'가 주최하는 교역자 수양회가 목포에서 있었기 때문이다(6월 4일 입국한 리처드 래쉬 참석). 김은석과 몇몇 동지들은 선교부가 주최하는 이 집회에 참여할지를 놓고 심히 갈등하다가 결국 동참하였다.

김은석 목사와 선교사들과의 관계

- 이 점에 대해서 김은석은 1957년 8월 30일(금)에 "이 집회는 진행해 가기가 극난인 것인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유는 선교사 주최라 함이다."라는 메모를 남겼다.
- 김은석의 영향권에 있었던 충청이남지역 목회자들은 성령의 은사론과 교단조직을 거부하는 선교사들에게 이질감을 느껴왔고, 1955년 말에 존 채이스를 대신해서 기독교회선교부 책임자가 된 해롤드 테일러는 에스더 힐의 일탈행위로 추락한 선교사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게다가 테일러는 교단조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다.

김은석 목사와
최요한 목사와의 관계



김은석 목사와 최요한 목사와의 관계

- 최요한 목사가 재 환원한 것은 그리스도의교회에 대한 신념 뿐 아니라,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등과의 끈끈한 의리 때문이었다.
- 최요한 목사는 재 환원 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전남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에 공헌하였다.**
- 김은석과 최요한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에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은석 목사와 최요한 목사와의 관계

- **최요한 목사는**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궁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듬해인 1947년 1월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1947년 7월에 전남 영광군에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 1948년 3월초 광주 사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에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 전남 목포에 그리스도의 교회, **총 7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김은석 목사와 최요한 목사와의 관계

- 최요한 목사는 5년 후 재 환원하여 1957년 10월 1일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 진도 군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매화 그리스도의 교회, 여수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 총 4개 교회를 환원시켰다.
- 1963년 목포 고하도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해남 상공 그리스도의 교회, 1970년 목포 외달도 그리스도의 교회, 1973년 목포 달리 그리스도의 교회, 여수 화정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금화 그리스도의 교회, 총 6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김은석 목사와 최요한 목사와의 관계

- 1972년 최수신 전도사의 광주 발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1년 광주 무등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6년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3곳은 최요한 목사의 지원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 또 새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죽교동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형제 그리스도의 교회, 3곳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태가 되어 개척되었다.

김은석 목사와 최요한 목사와의 관계

- 그 밖에도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마명리(화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사포리(화산 반석)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읍 부호리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압해면 고이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서남 그리스도의 교회, 영암군 영암읍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7곳이 최요한 목사의 영향을 받아 환원한 교회 또는 개척된 교회들이다.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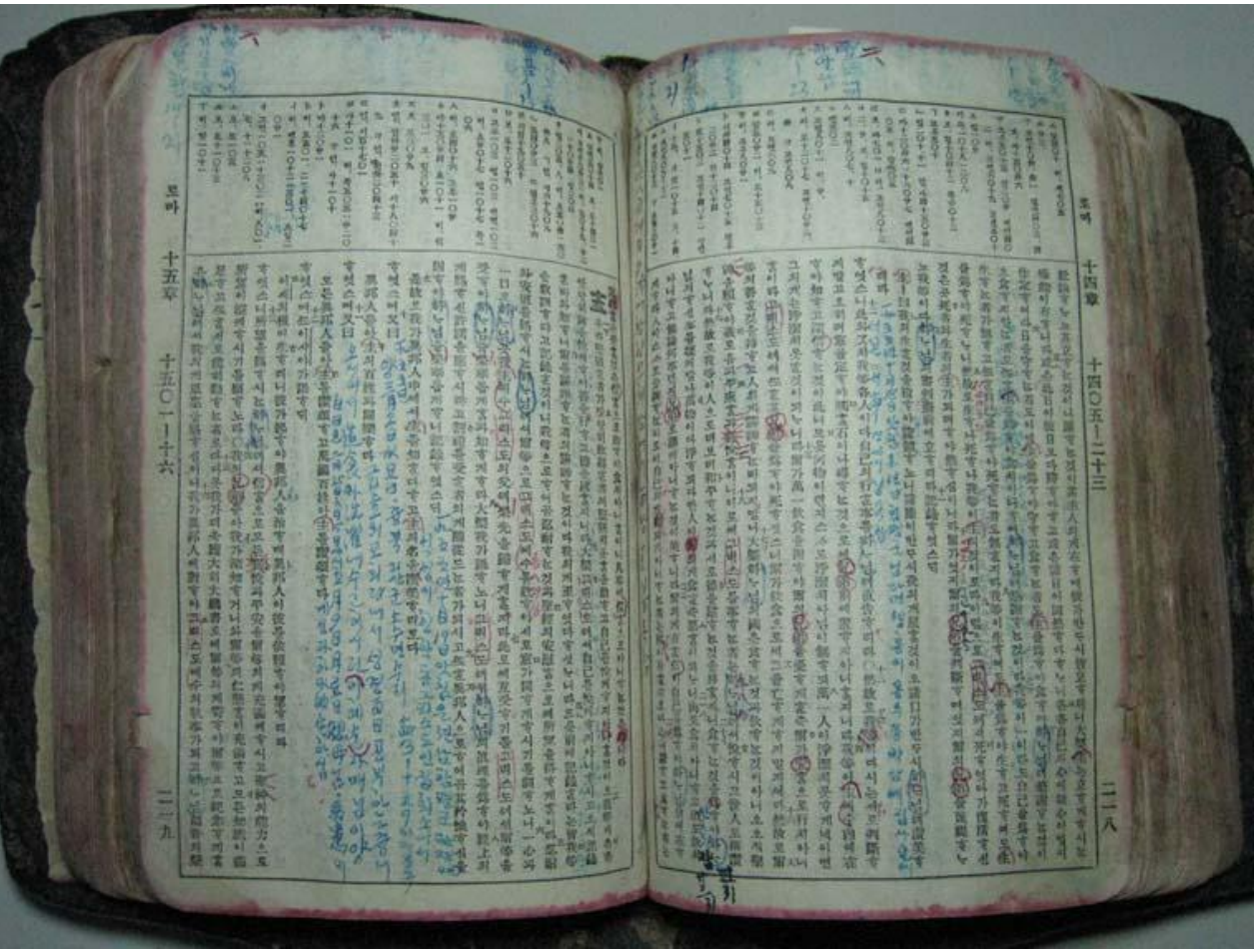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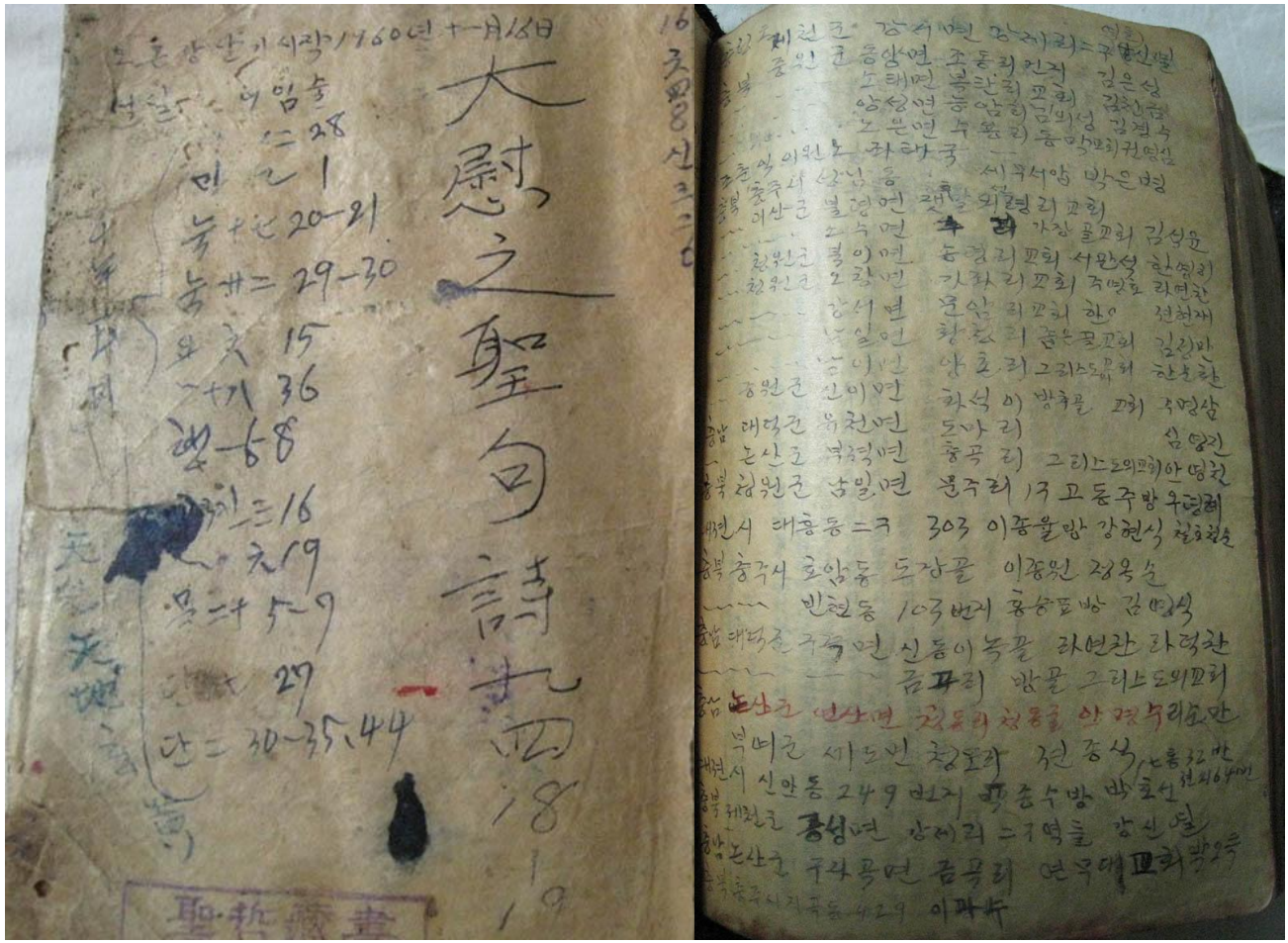


김은석 목사의 성경과 가죽 가방



김은석 목사의 성경
한국성서신학교 개교 당시 교수와 학생들
(1959-60년 겨울, 심영진 목사가 개척한 성화 교회당 앞)





김은석 목사의 성경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 관주 성경책으로 손수 수 차례 제본하였다. 신약성경을 욥기와 시편 사이로 옮기고, 메모지들을 추가하여 꿰맸다. 1953-58년의 성경통독 메모를 비롯하여 여러 기록을 남겨놓았다.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 박점상 목사에 의하면, 1946년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시작되었다.
- 김은석은 부강에서 병원을 개업한 신현창 장로(CCM작곡가 최덕신, 최유신 목사의 외조부)와 더불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설하였다.
-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처음에 '경천학'이라 불렸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의 장이라는 의미"로 신화 신학으로 개명되었다.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초기에 공부했던 목회자들은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김동열, 이원노 등이었다.
- 10여년이 지난 1955년 4월 12일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소수교회당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 참석하여 당일 4시까지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유경히, 곡봉예, 전도희, 최옥순, 이혜순, 정히순, 김옥히”(이상 여자), “이원노, 박장봉, 차대훈, 나연찬, 김명석, 김웅석”(이상 남자)이었다.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성경연구집회들에 참석한 인원이 평일 10-20명, 주말 수 십여 명에 달했다.
- 이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의 아들이자, 김은석의 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이자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들이며, 이신(이만수)도 6·25때 광주에서 김은석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회에서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한 목회자요 교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 첫째, 백일성경연구집회였다.
- 김은석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면, 일일, 열흘, 한 달 혹은 한 달 반 등 제한 없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백일집회**를 선호하였다. 그가 1945년 가을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일집회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이런 집회가 일 년에도 몇 차례씩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 년의 대부분을 집을 떠나 타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족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1953년 8월초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연합성경사경회를 9월 15일까지 개최하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2)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 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유달 교회는 최요한 목사가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무렵에 이적하여 세운 순복음교회였다.
- (3)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4)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공부하는 기간에 봉독함. 이것은 1957년 3월 6일 수요일 메모로써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 (5) 1957년 8월 31일(토) 아침은 또한 목포성경연구소에서 7:5-8장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이신, 김은석 4인이 결의 부강서 9월 17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기로 함.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최요한 목사는 1957년 8월과 9월에 이 목포에서 속개된 성경연구집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키로 마음을 확정하고 목포시 대안동 11번지 자택에서 9월말부터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여 10월 1일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담임하던 목포 복음교회는 10월 5일 정식으로 사임하였다.
- 이 밖에도 1955년 10월 15일부터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연말까지 성경공부가 있었다. 1951년경에는 영광에서 100일 집회가 개최되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둘째, 이동 신학교였다.
- 김은석은 이신과 같은 동료들과 더불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장소들로는 부강, 광주, 목포, 해남, 함평, 부여, 오창, 괴산, 충주, 대구 등지였다.
  - (1)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광주에서 있었다. 이때 교수는 김은석, 이신, 창현 함태영 등이었다.
  - (2) 1952년에 광주에서 운영되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이신이 시무하던 부여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합송은 이홍식이 1950년 3월 19일 개척하였고,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 제1대 목회자로 부임하여 10월까지 시무하였다.
  - (3) 1953년 8월초에서 9월 15일까지 개최된 연합성경사경회는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집회소에서 열렸다.
  - (4) 1954년 5월 25일에 백호리 교회에서... 공부하였다. 이 메모는 전남 해남군에서 성경연구집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5) 1954년 6월 1일(화)부터 10(목)일까지 대구 동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김은석은 10일간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 (6) 1954년 6월 14일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붙이고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던 목포 유달 순복음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운영되었다.
- (7)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된 백일성경연구집회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인도되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8) 1955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1월까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과 청학동 교회당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있었다.
- (9)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와 9월 17일부터 시작된 백일성경연구집회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에서 인도되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셋째, 학업방식은 성경통독강의였다.
-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1954년 4월 21일(수)... 모여든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5-6장 공부함.
  - (2) 1954년 4월 23일(금)... 저녁에 부강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공부 오신 분들과 같이 돌려 봉독하야 사도행전 8장 공부함.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3) 1954년 4월 30일(금)... 명(明) 5월 1일부터는 에스겔을 공부하기로 함.
- (4) 1955년 4월 16일(토)...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2월 25일부터 시작한 백일집회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바 4월 16일은 수십 명이 공부하였다.
- (5)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 의하면,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서는 로마서를 공부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6) 1955년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다.

- 백일성경연구와 집중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김은석 목사는 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서 “금(今)번 이 공부 중에는 천신만고에 난관이 있었다.”고 적고 있고, 동년 10월 20일(목)자 메모에서는 “의외(意外)에 이 신생동에 성경 공부한다는 시작이 되여 일기가 치귀서(차가서) 고생이다.”고 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신생동이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을 말하며, 12월 16일(금)자 메모에서는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엿슴).”이라고 적었다.
- 김은석과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고충은 대개가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또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데서 오는 가족들의 불만이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넷째, 성령 충만함이었다.
- 김은석 목사는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아 노회로부터 제명된 것에서 보듯이 김은석 목사 사역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이었다.
-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그 당시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봉례 집사, 김규상(목사), 김교인 장로, 윤정렬 사모, 김철수(목사), 오연우 장로, 전도희 집사, 황 집사, 김복수 집사와 그의 딸 김은영, 박오덕, 장 집사, 전도 부인 민명옥 등 7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이들 가운데 김철수, 김복수는 김교인 장로의 자녀들이고, 구봉례 집사는 김규상의 모친이다. 여기서만 목회자가 세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김규상 목사, 김철수 목사, 전도희 전도사이다. 김교인 장로의 또 다른 두 아들인 김재순과 김태수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가 되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장주열과 최요한도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김규상은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100일 집회에 참석하여 김동열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동년에 16살의 나이로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였다고 한다.
- 이신도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 때 피난생활을 하던 중 1951년 김은석이 인도하는 광주집회에 참석하여 김은석의 성령역사에 크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다섯째, 전도실습이었다.
- 1955년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개최된 백일성경연구집회 때인 5월의 성경통독메모를 보면,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고, 27일 금요일에는 동리에 나가서 축호전도를 하였다.
- 1957년 9월 6일 금요일에는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가게 한 후에 본인도 하이도행 외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척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1902년 5월 14일(음) 출생, 1963년 1월 21일 별세(61세)
- 그리스도의 나라에 몸바친 애국자
- 세상사(가정, 즐거움, 명절, 등)를 멀리한 가장(家長)
-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 받은 지도자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었던 독서가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했던 신령한 자
- 신약성경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 및 그 능력을 복원하고자 3대 운동을 전개했던 개혁가
- 사도 바울과 같은 떠돌이 전도자
- 수십 개 신약성경교회 개척자들의 사도
-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설립자 및 목회자 양성자
- 반천련(伴天連, 동역자들)의 박애 스승



김은석 목사의 형제들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1958년 4월 15일)
김명순(뒷줄), 김성철(목사, 뒷줄), 김순희(앞줄)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1958년 7월 4일)
앞줄 좌측부터 김윤구 집사(부강역장), 김은석 목사, 김완례 사모
뒷줄 좌측부터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조00권사



김완례 사모와 힐 제인(Jane Hill) 사모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출생: 황해도 평산군 당구리, 6남매 중 장남(김종은)

- 김은석 목사의 생신 날짜는 정확하게 음력 5월 14일이다. 성경통독메모에 생신에 관한 언급이 1955년 7월 3일과 1956년 6월 22일에 두 번 나온다. 모두가 음력 5월 14일이다.
- 다만 출생연도가 정확하지 않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를 보면, 1902년으로 되어 있는데, 1955년 7월 3일 메모를 보면, “금일 주일 아(我) 생일인데 갈산교회당 골방에서 시편 83:1-89:12까지 봉독함…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출생

- …완례씨도 내(來)함. 4288년 5월 14일 황우재, 이정자, 암(임?) 정례, 집사님들도 내(來)함. 아(我) 출생(出生) 52년 주이다.”고 적고 있다.
- 1955년이 52주년이라면, 1903년생이 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적은 글일지라도 착각이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902년생인지, 1903년생인지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별세

- 1963년 1월 20일(주일)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마친 후 밤 10시가 넘어 고구마를 먹고 탈이 났다.
- 3년 전 위 수술을 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복통을 일으켜 앓다가 다음 날 21일 (월요일) 최봉석 집사(장로, 고 명달재 목사 장인)댁에서 별세하였다.

장지

-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1964 7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하나님과의 관계

- 김은석 목사는 '하나님'이란 단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그 사용빈도수를 209회로 체크했던 그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용 빈도수를 112회로 체크하였고〈성경 66권 전체에 쓰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란 단어에 동그라미 마크를 해놓았다〉, 총 1134절로 되어 있음을 적고 있다. 이는 그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김은석 목사는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이라 적고 있고, 헌금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 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었던 독서가

- 김은석 목사에게는 **성경통독의 원칙**이 있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구약의 책은 장(章)의 순서대로 읽고, 신약의 책은 장(章)의 역순으로 끝장에서 시작하여 첫 장을 향해서 읽곤 하였다.
-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애굽기를 통독했던 1955년 1-2월 중에서 대전 자택에 머문 날은 단 하룻밤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광주 집회소(김재순)에 있다가…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대전 선화동교회로 바로 갔고,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대보교회를 거쳐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수리교회(장천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6일을 머문 후에 대전의 집에 와서는 단 하루 밤만 지내고 다시 논산 충곡교회(안영천)로 옮겨 가서 5일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전남 영광으로 떠나 그곳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1954년 2월 2일에도 해남군에서 영산포행 차를 기다리는 중에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고, 1956년 1월 19일에는 목포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출애굽기 통독**을 마친 54, 55, 56, 57년의 시점이 모두 1-2월경이고, 57년만 부강교회이고, 나머지 세 번은 전남의 끝자락이어서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분으로 여겨진다.

- 이런 남편과 아버지를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가족의 희생은 김은석 목사에 못지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 김은석 목사는 일 년 365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
- 자신의 교회와 집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의 집에서도 읽었고, 여행 중에 버스와 기차 안에서 읽었으며, 식사 중에 대중식당에서도 읽었고, 역전에서도 읽었으며, 병석에서도 그날 분량을 반드시 읽었다. 다만 1954, 56, 57년 주일에는 주중에 읽던 책을 계속 읽지 않고 욥기를 읽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 김은석 목사는 매 장마다 언제 어디서 어디를 읽었는지를 메모해 놓았다. 여기서는 창세기 한 곳 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 김은석 목사는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빈 공간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총 209회 있다"고 적었다. 그는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그 사용빈도수를 체크했던 것이다. 그는 또 "1954년 1월 17일 주일에 평택(?) 역전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봉독한 창세기를 다 봉독하였다. 봉독한 장소는 역전광장이었다."고 적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 또 그 옆에는 “출애굽서을 봉독하기 시작함.”이라고 적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는 그 해에 신구약성경 전체를 9월 26일 새벽 3시경에, 전남 광주 사동 다리 밑 자신의 누이 금인의 집에서, 269일 만에 완독을 마쳤다.
- 김은석의 창세기 통독을 살펴보면, 1955년, 56년, 57년에 각각 읽고 있는데, 55년에는 1월과 11-12월까지 읽고 있고, 56년과 57년에는 각각 1월에 읽고 있다. 55년에는 매일 아침 한 장씩을, 56년에는 힘닿는 대로 많이, 57년에는 하루 세 장씩을 읽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 1955년 1월의 경우를 보면, 논산 충곡리 교회에서, 부여 합송리 교회에서, 광주 광산동 80번지 집회소 등지에서 주일을 뺀 매일 2장씩을 읽고 있다.
- 1955년 11월의 경우를 보면, 1955년 11월 2일(수) 시작하여 하루 한 장씩 읽은 후 12월 28일(수)에 끝을 내고 있다. 11월 첫 주에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다시 석성리의 교회들을 돌면서 한 장씩 읽었고…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 … 둘째 주에는 광주 김재순 목사 댁, 대전 자택, 충북 부강교회, 문암리 교회, 충주읍 제일 감리교회에서 각각 한 장씩 읽었으며, 셋째 주 주일에는 충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어서,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을 각각 읽었고, 충주시 성남동과 호암리 도장골 성도의 집에서, 대중식당에서 조식 중에, 충주시 앙성면 능곡리와 도장골 성도의 집에서 각각 한 장씩 읽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 … 넷째 주에는 충주 충인동과 소태면 복탄리의 성도의 집과 대전 자택에서, 청주시 영운동 성도의 집과 충주로 가는 길에서 각각 한 장씩 읽고 있고, 다섯 째 주에는 충주시 동령면 조동리 교회 강단 뒤에서 읽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했던 신령한 자

- 김은석 목사는 **기도의 용사**였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강단 앞과 강단 옆과 강단 뒤에서 읽었던 만큼 기도를 겸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당을 찾아가 성경을 읽은 것은 기도를 겸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가끔씩 금식 중에 성경을 읽었다. 1955년 3월 16일 수리교회에서, 19일 부강교회에서 금식 중에 성경을 읽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은 떠돌이 전도자

- 김은석 목사는 일 년이면 대부분을 전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순방하는데 할애하였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그토록 많았고, 집에도 잘 가지 못했을까? 교통은 물론이고 생활형편이 심히 어려웠던 당시에 타지에서 옷가지들의 세탁은 어떻게 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녔을까? 김은석 목사의 이동수단은 버스, 기차, 배 그리고 도보였고, 이렇게 자주 이동했던 것은 집회와 강의와 전도 때문이었다. 숙식은 교회주택이나 성도의 집에서 해결하였고, 세탁은 손수 하거나 맡겨서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은 떠돌이 전도자

- 김은석 목사는 세상 즐거움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었다.
- 성경에 남긴 메모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의 행적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6년이나 된다. 일 년 365일 거의 매일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다. 그의 일상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었고 교회순방을 위해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은 떠돌이 전도자

- … 교회당에서, 강단 앞에서, 강단 옆에서, 강단 뒤에서, 교회의 골방에서, 목회자의 방에서, 자택의 방에서, 다락방에서, 심방한 성도의 방에서, 식사하던 식당에서, 기차에서, 버스에서, 배에서, 정류장에서, 터미널에서, 누구와 있든지, 누구와 동행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로 향하든지 상관없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매일 그렇게 읽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반 전에, 조반 후에, 오후에, 늦은 밤에, 새벽에 읽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은 떠돌이 전도자

- 실로 그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부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세상 행복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만을 귀하게 여기셨다.
- 김은석 목사는 사생활이 없었다. 일 년이면 거의 대부분을 남의 교회와 남의 집에 머물렀고, 그것조차도 동역자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그가 어쩌다 자택을 찾는 경우에도 동역자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마 12:50)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김은석도 함께한 주의 일군들이 형제요 자매였다. 김은석은 자기보다 어린 동역자들까지도 자주 ‘형’(兄)이라 썼고, ‘형제’라 호칭하였다. 이들 중에는 김재순, 김명석, 이신, 최요한이 있었다. 진성구, 김교인 장로들을 호칭할 때는 항상 ‘님’를 붙였다. 여성에게도 ‘님’자를 붙여, 박종예 자매님, 이원화 자매님, 전도희 자매님 식으로 호칭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 김은석 목사의 교회 순방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집회를 포함한 전도활동과 성경강의였을 것이다. 김은석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를 존경하였다.
- 그의 메모는 주로 성경을 어느 장소 누구의 집에서 몇 장까지를 읽었는가에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교회에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모친방문, 병석 등 특별한 경우들을 빼놓고서는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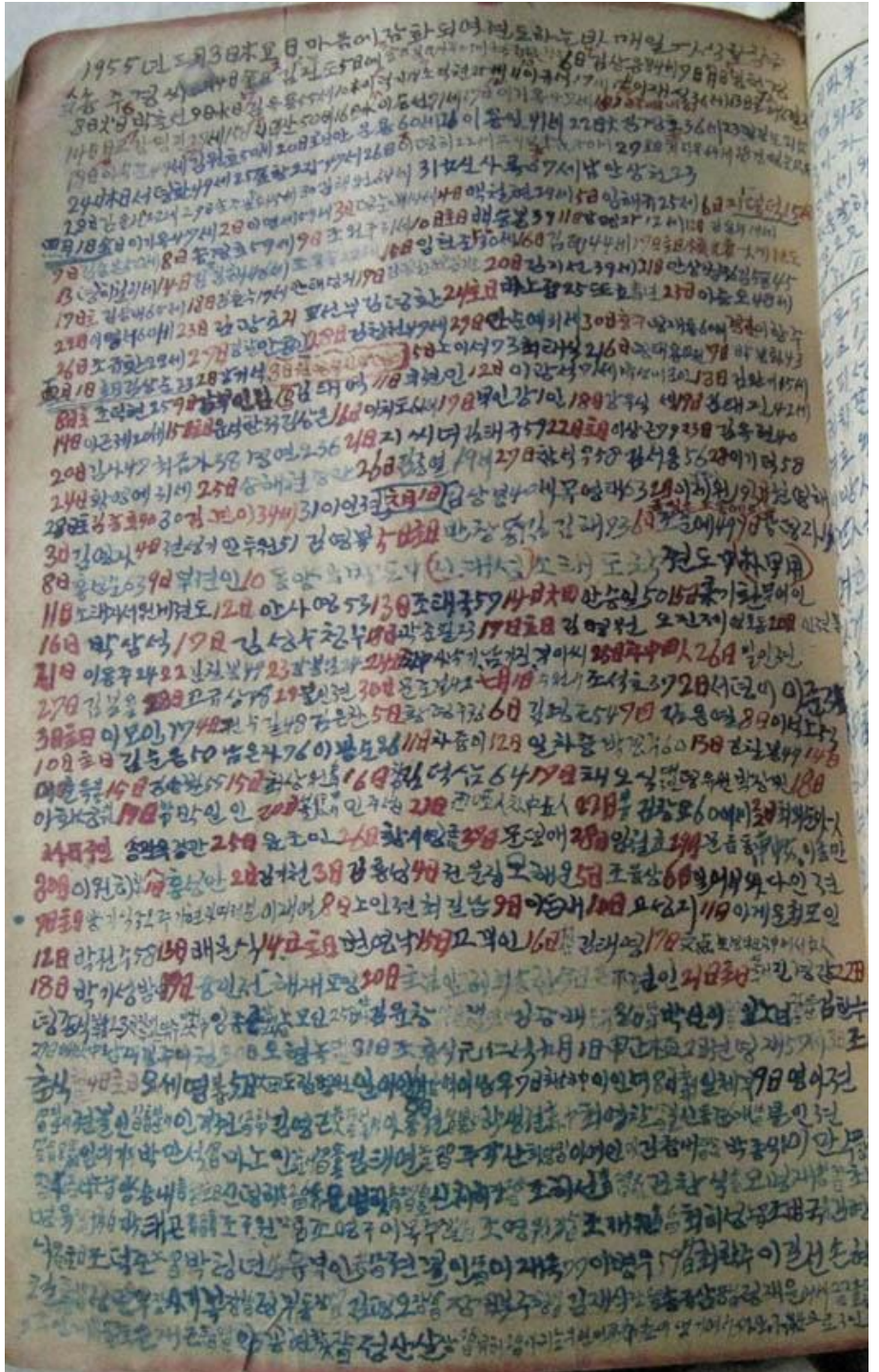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1955년 12월 16일(금) 아침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창세기 40장을 읽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적고 있다.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엿슴). 금일 나는 대전을 향거(向去)할 것이다.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
-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은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그의 설교나 강의를 더 많이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최용호 목사의 박정자 사모는 처녀 때 이 일의 목격자로서 김은석 목사가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에 도착하면 그 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 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몇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실로 그는 존경받는 목사였던 것이다.
- 김은석 목사가 전도하는 날은 365일 매일이었다. "1955년 3월 3일 목요일 마음에 감화되어 전도하는 바 매일 일인 씩 할 작정"이라고 적고 이어서 한 페이지 촘촘하게 전도한 일자와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고 있다.

김은석의 일년 365일 매일매일의 전도 일지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가 남긴 성경의 한 페이지, 모세오경이 끝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이의 빈 공간에 3월 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매일 일인 이상씩 전도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빼곡히 적고 있다.
- 그는 심지어 주일에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한번 마음에 결정한 것을 실천에 옮기 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고 마는 김은석 목사의 의지력과 실천력은 가히 놀랄만한 것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 10월 26일자에 더 이상 글씨를 쓸 공간이 없어서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우연이 耳痛症(이통증)이 생기여서 外出不能(외출불능)으로 젼도 못함.” 병이 들어 외출을 하지 못할 경우가 아니면, 비록 그날이 주일이든, 생일날이든, 추석 같은 무슨 특별한 날일지라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던 김은석 목사였다.
- 김은석 목사의 전도대상은 남녀노소 군인 경찰 교사부인 등, 구분이 전혀 없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 4월 17일 주일날에는 “校先妻(학교 선생의 처) 一人게 젼도”라고 적기도 하였다. 10월 22일 날에는 “목포 평화하숙 주인에게”라고 적고 있다.
- 김은석 목사의 전도 장소는 부강, 대전, 연산, 소태, 충주, 서울, 강진, 상월, 목포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성경통독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일 때에도 전도하였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도 전도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 전도를 하지 못한 날은 “불젼인” 혹은 “젼불인”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일 년을 통틀어 몇 번 되지 않는다. 특히 8월 20일자에서는 “주님 앞에 죄송함. 금일은 불젼인”이라고 적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고 한 사도 바울의 전도열정에 못지않은 김은석 목사의 열정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 이토록 김은석 목사는 그의 짧은 일생을 전도 집회와 성경강의를 위해서 헌신하였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입양한 남매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있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떠돌이 전도인의 삶을 그대로 추종하였던 것이다. 분명 그는 예수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떠돌이 예언자의 삶을 추종하였던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몸바친 애국자

- 김은석 목사는 일제강점기에 만주와 일본에서, 해방 후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애국자**였다. 생애 마지막 17년간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 헌신하였다.
- 60평생을 바울과 그의 반천련처럼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전 4:11,13).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였다(고전 4:15).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세상사(가정, 즐거움, 명절, 등)를 멀리한 가장(家長)

- 일년 중 대부분을 집회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를 위해서 타지에서 보냈고, 끊임없이 이 지역 저 지역,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녔으므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였다.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때가 매우 많았다.
- 대전 자택에 머무는 동안에도 동역자들이 수시로 방문하였고, 그들을 섬겨야 했던 김완례 사모의 고통은 매우 컸다. 가난했던 데다가 병약했기 때문이다. 물론 동역자들 중에는 끼닛거리(쌀, 닭 등)를 들고 오는 분들도 없지는 않았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1957년 8월 26일(월)에 김은석 목사가 남긴 메모에 이런 글이 있다.
-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1:1-2:9까지 봉독함. 어젯밤 고린도전서 7장 3절("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대로 지내었고, 편지를 받은 최춘선,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테일러, 박은병씨가 온 것이었다. 집이 민망함은 완례씨가 항상 불만생활을 함입니다. 심영(령)병이 있음으로 육신병이 임함…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오전 9시 48분경에 고린도전서 3:9-4장말까지 봉독하는 중 내가 크게 각성을 가지게 된 것은 4:9(“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와 4:11(“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이하 바울이 경천애인 생활한 것을 보고 위안 받음. 지금 날마다 집에 당함은 생활난입니다. 저녁에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5-6장까지 봉독 함. 김은영, 최근수, 이신, 김윤구, 김영애, 고광석, 임온년, 7남매가 다녀가심. 최근수, 김은영은 혼인사로, 이신은 목포 강사로.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 김은석 목사에게 세상일은 그다지 중요치 않았다. 그는 양아들 김성철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 주기를 바랐으나 평소 세상공부는 필요치 않다며 학교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 김성철 목사가 충남상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것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김성철의 친부인 김명석(김주일) 전도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비교 삼상 2:29)는 말씀이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 김은석 목사는 1955년 2월 25일(금)부터 6월 4일(토)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백일 성경연구집회를 열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을 5월 27일에 강론하였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가족에 관한 태도를 설파하는 김은석 목사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 무게가 실렸으리라고 생각된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 1954년 4월 첫 주말에 전남 교회(최요한 목사)를 다녀온 김은석 목사는 다음날인 4월 6일 화요일 아침에 사무엘상 9:9-12:25까지를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교회에서 읽었는데,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었는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그런 중에 특별한 일리 엇슴은 나는 금일부터는 가족을 아주 떠나는 것을 선언." 또 같은 날 부강교회로 옮겨서 저녁에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4장을 읽고는 "사랑받으며 봉독함"이라고 적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 … 다음 날인 7일 수요일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엘상을 읽었다. 그리고 10일 토요일 주일예배 참석차 대전에 왔고, 주일인 11일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유호성 전도사에게 전임시키고 있다.
- 그리고 다음날 12일 월요일 아침에 평소 습관대로 성경을 읽고 조반 후에 부강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부인 김완례 사모가 병이 났고, 병자를 두고 떠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 할 수 없이 그는 13일 화요일까지 남아서 병상을 지키다가 14일 수요일 부강으로 떠나고 있다. 그러나 김완례 사모의 병은 그 주간 내내 완쾌되지 못했고, 김은석 목사는 16일 금요일에 돌아와 병든 사모 곁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리고 18일 주일을 지킨 후 19일 월요일에 대전시 은행동 2구 1번지 10통 41반으로 이사하였다.
- 대전 선화동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매입한 땅에 건물을 짓고 시작한 자기 교회였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 그러나 사임을 했으니 집을 비어줘야 했을 것이고, 사모는 이 갑작스런 결정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을 것이다.
- 이 사건이 있었던 1954년 4월은 김은석 목사의 심경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이 기간에 그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상당히 고무되고 업(up)된 상태였으며, 성경을 읽는 시간도 아침에 국한되지 않고, 늦은 밤이나 한 밤중까지 계속되곤 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 그러나 1958년까지의 행적을 볼 때, 그가 가족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부흥집회와 성경연구집회에 전념하겠다는 뜻이었지, 가족을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떻든 그의 출가선언은 가족에게 적지 아니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 이렇듯 김은석 목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은 물론 재산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희생적인 신앙인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 명절

- 김은석 목사에게 설날과 추석 혹은 생일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은 그의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거나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명절을 맞는 일이 적어도 그의 성경메모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 1954년 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도 그는 집에 가지 않고 교회를 예방하는 요무(要務)로 2일(화) 전남 해남군 성전시장에서 대전행 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산포행차를 기다렸고, 열차를 기다리며 출애굽기를 읽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 명절

- 1955년은 1월 23일(일)부터 25일(화)까지가 설날이었는데 그는 22-23일(토-일)에 광주 집회소에 있었고, 24일 월요일 설날에서야 대전 선화동에 도착하여 25일까지 이틀 밤을 묵고, 26일(수)에는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에 갔다가 27일(목)에 수리교회로 올라갔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 명절

- 1956년은 2월 11일(토)-13일(월)까지가 설날이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부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1957년에는 1월 30일(목)부터 2월 1일(금)까지가 설날이었다. 그는 이때에도 부강교회당 골방에 머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다.
- 이토록 김은석 목사는 오로지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만큼은 반드시 지참하고 다녔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 명절

- 성경과 함께 먹고, 성경과 함께 자고, 성경과 동행하였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1954년 4월 6일 저녁 11시경 근경에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4장까지 사랑받으며 봉독함.”이라고 적고 있다.
- 그는 일 년 삼백육십오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으며, 전국의 교회들을 순방하며 집회를 열고 또 날짜를 정하여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가르쳤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와 세상 명절

- 특히 그는 일 년이면 몇 차례 씩 일백일 또는 석 달 동안 씩 집중적으로 성경연구집회를 열었다. 1954년 6월 1일(화)부터 10(목)일까지 대구 동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0일간 부흥회 겸 성경공부를 인도하였으며, 1955년 2월 25일(금)부터 6월 4일(토)까지 소수교회에서 일백일 신학공부를 열었고, 이 기간에 소수교회에 머물렀으며,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짜리 성경연구집회를 부강교회에서 열었으며, 김은석 목사는 이 기간 동안에 부강교회에 체류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 김은석 목사의 박애(博愛) 정신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많다. 그의 성경통독메모들을 통해서 김은석 목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 특히 교회와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경비를 써가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첫째, 김은석 목사는 1957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육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종만 목사가 운영하던 인천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오양균, 김규제, 김규성 세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 3월 23일 토요일 아침에 수원 동생네 집에 들러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인 후 오후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김은석 목사는 수시로 충남 부여군 합송리 구애보육원, 판암동 애생원, 인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인천시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청주시 영운동 박인회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 둘째, 김은석 목사는 1955년 7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충북 청주 예배당 구입 문제로 이한상 형제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선교부에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 일도 하루에 처리하지 못하고 오던 길 밤에 천안에 있는 황해여인숙에서 하루 밤을 보내게 된다.
- 셋째, 김은석은 1956년 7월 10일 화요일 새벽 2시경에 대전 은행동 자택에서 성경 요한복음을 봉독한 후에 새벽 4시 31분발 서울행 제6열 급행열차를 타고 선교부에 가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 선교부 방문의 목적은 김명석 전도사 부인 김성철 목사의 생부 생모에게 급하게 도와야 할 일이 생겨서 도와줄 방도를 찾기 위해서 였다.
- 이뿐만 아니라, 가좌교회의 일과 또 다른 일들도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였다. 1955년 12월 27일자 메모에서 김은석 목사는 가좌교회를 **"핍박이 심한 개척이다."**라고 적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처지의 개척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 따라서 김은석 목사는 가좌교회에서 힘겹게 분투하는 전도희 전도사를 자주 위로 방문하였고, 여러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성경연구집회를 갖곤 하였다.
- 또 김은석 목사는 1957년 9월 6일 금요일에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가게 한 후에 본인은 하이도행 외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척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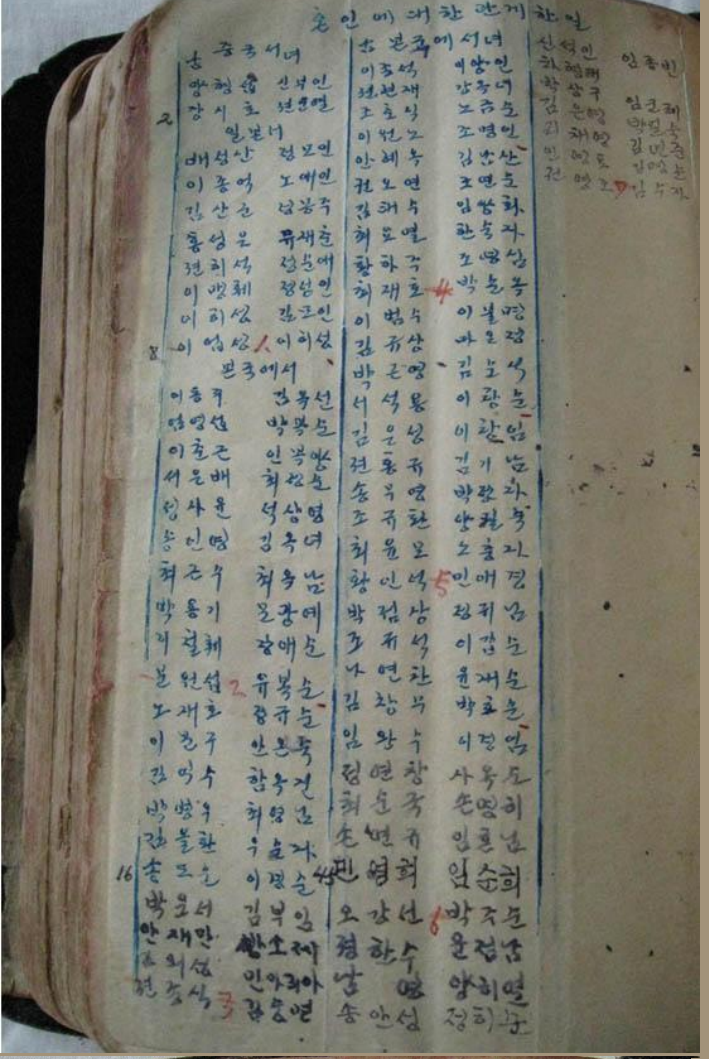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 월요일 그곳을 떠날 때, 느낀 점을 이렇게 적고 있다.
- “오늘 하의에서 떠날 때 임혜숙 자매에 외로와함 보면서 동정심이 심하였다.”
- 주의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의 일군들, 특히 여성 사역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김은석 목사는 깊은 동정심을 가졌던 것 같다. 공부할 때나 전도할 때나 항상 그의 곁에는 남성 동역자들과 제자들에 못지않게 헌신적인 많은 여성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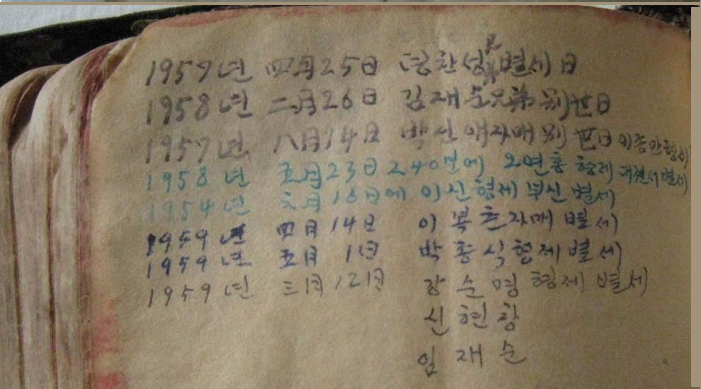
- 넷째, 김은석 목사는 병석에 누운 동역자들을 찾아 위문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1955년 8월 16일자에는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와 판암동 애생원을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 김완례 사모 등과 함께 위로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김은석 목사는 자주 병이 나는 김완례 사모의 병간호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김은석 목사는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경천 애인

맺는 말

- 올해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의 탄생 124주년을 맞이하였다.
- 코로나 이후 시작된 그리스도교 쇠퇴기를 맞이하여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성장을 도모(圖謀)하고 전진할 방향과 원동력(原動力)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 그 답이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숙고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 김은석 목사는 1946년에 부강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1963년 1월 21일 별세하기까지 대략 16년 동안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수 십여 개의 개척교회들이 자력으로 세워지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 물론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선교사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선교사 정서와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김은석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례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그들의 지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국인들(Indigenous nationals)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만으로도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표(師表)이다.

- **김은석 목사는 성경으로 완전무장한 하나님의 용사였다.**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말하며, 성경의 내용만을 설교하고, 성경의 내용만을 가르친, 성경에 목숨 건 성경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김은석 목사가 보여준 실천적 목회자의 삶이었다.
- 김은석 목사의 성경지식은 그의 설교나 강해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마치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신구약성경의 짝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았다. 오직 성경만을 말하고 그 성경 위에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세웠던 **신약성경교회의 개척자**였다.

- **우리는 누군가가 진 십자가에 기대어 있다.** 제 힘이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 일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인척이나 선배일 수도 있고, 목사나 교우일수도 있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무명인 일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짊어진 십자가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다. 작고 초라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의 십자가와 눈물과 땀과 배고픔과 고달픔과 외로움이 켜켜이 쌓이고 쉬이고 다져져 딛고 설만큼 단단한 반석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75주년 기념대회 장면(2007.08)